

















청년과 거버넌스의 만남 1단계



1. 으싸으싸하다가
우리끼리 싸운다.
feat. 적은 내부에 있다.



청년과 거버넌스의 만남 3단계

1. 갈등은 너무 당연하다.
2. 의원 안에 끈대 있다.
3.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4. 의원은 청년을 만날 기회가 적다.
5. 의원과 청년, 우리의 대변인을 찾아라!











2015.8.25, 수원시장

염대영님이 새로운 사진 4장을 추가했습니다.
 2015년 8월 25일

<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고민 5 >
 태종 고니의 영향으로 부슬비가 불쭙리는 오늘 오후, 권선구 서문동에 4
 구 농진청과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방문하여, 이들 공공기관이 이전
 될 공실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습니다.

며칠째 제 폐북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수원 청년 상륙작전>의 일
 로 청년문화와 일자리가 결합된 가칭 '수원청년 창의센터' 설립 등 앞
 리시가 추진해 나갈 다양한 청년사업의 효율적인 공간으로 이 건축물들
 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수원 청년 상륙작전>이 우리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많은 의견이 필요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청하라 하신 분도 계셨고, 영국과 미국 등 선진 사례를 소개해 주신 분
 습니다.

기꺼이 주신 의견은 우리시 청년정책 수립에 매우 소중한 참고자료
 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로 전개될 우리시 청년정책 논의에 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첫번째 사진은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구 서울대 농생대 캠퍼스의 도서
 이고요, 두번째, 세번째 사진은 구 농진청내 농업과학도서관 4층 건물
 배관다에서 여기서 산 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 구 농진청내 농업과학도서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은 우리시가 인수해
 시 시장연구원 등으로 활용계획이 추진중입니다만, '수원청년 창의센터'
 용도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 사진은 구 농진청내 부속 건물로, 이 건물은 이미 리모델링 공
 마쳐져서 내달 9월이면 우리시 공원복지사업소가 이전, 입주할 계획입







* □□ □□ □□ □□ □ □ □ □□□.

<□□ □□ □□ □□□□□□>

□□ : 2017□ 11□ 25□~26□

□□ : □□□□□□□□ □□□□□

□□ : □□□□□□3.0 □□□□ □□□